

진정한 휴식은 마음이 쉬는 것입니다.

마음이 쉬지 못할 때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휴식이 아닙니다.

- 성전스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병원의 전문성·우수성 입증’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1등급 획득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1등급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7월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제4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종합점수 92.5점으로, 전 영역에서 종합병원 평균 63.8점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2014년, 2017년, 2019년에 이은 4차 평가로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종합병원 이상 303기관(상급종합병원 45기관, 종합병원 258기관)의 중환자실에 입원한 만 18세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마취 적정성 평가’ 1등급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7월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3차 마취 적정성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종합점수 99.8점으로, 전 영역에서 종합병원 평균 91.5점을 웃도는 점수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마취 적정성 평가는 마취 영역의 의료질 개선 및 환자안전관리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2018년부터 시행됐으며,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1차, 2차 평가에 이어 3회 연속 1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1,079기관(상급종합병원 45기관, 종합병원 310기관, 병원 724기관)의 마취로가 청구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급성기뇌졸중 적정성 평가’ 1등급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7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급성기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10차 평가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종합병원 이상 249기관에서 급성기뇌졸중을 주상병으로 입원한 환자에 대한 진료분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전 평가 지표에서 종합병원 평균(85.57점) 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 1등급 의료기관에 선정됐다.

‘2023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1등급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7월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3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1등급,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1등급, 주사제 처방률 1등급, 처방건당 약품목수 1등급 등 전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심행 완화의료센터’개소 5주년 기념식 개최

‘정심행 완화의료센터’ 지난 7월 23일 개소 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정심행 완화의료센터’의 지난 5년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센터 운영에 기여한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식에는 권범선 병원장, 김동일 한방병원장, 신성준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장을 비롯한 교직원, 보조활동인력, 자원봉사자 등이 참석하여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한편, ‘정심행 완화의료센터’는 ‘정심행 불자의 소중한 기부가 모든 이의 귀감이 되도록 그 큰 뜻을 간직하고자 명명됐으며 2019년 6월 총 10개 병상을 갖춘 불교계 유일한 대학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를 시작으로, 2024년 현재 19병상과 2개의 임종실을 운영하고 있다.



‘2024 Happy Hospital 응원 캠페인’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의료대란으로 현장에서 끊임없이 헌신한 의료진의 사기와 자부심 진작을 위해 ‘2024 Happy Hospital 응원 캠페인’을 개최했다. 캠페인은 6월~7월에 걸쳐 진행됐으며, ‘아날로그 롤링페이퍼’와 ‘손편지’ 응원 캠페인으로 진행했다. ‘아날로그 롤링페이퍼’ 응원 캠페인은 총 35개 부서가 참여하여 의료진 간에 따뜻한 응원 메시지를 주고 받았으며 ‘손편지’ 응원 캠페인은 환자들이 담당 의료진에게 응원의 엽서를 작성하여 병원 1층 로비에 전시했다. 응원의 엽서는 의료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스럽게 전달되어 환자들의 응원의 목소리를 들려주었다. 캠페인을 통해 어려운 여건에도 교직원 간의 응원과 환자들의 따뜻한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었다.



송천사 혜장스님,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발전기금 2천만 원 기부

은평구 송천사 주지 혜장스님이 지난 7월 25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발전을 위해 2천만 원을 기부했다. 송천사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혜장스님과 함께 권범선 병원장, 김명숙 대외협력홍보팀장이 참석했다. 혜장스님은 “불교병원이 있어 든든하고 감사하다”며 “병원에 방문했을 때 로비 전광판에 ‘아프고 외로운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여기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보고 발심했고 이 기부금이 의료 장비 구입에 사용되어 불교 병원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기부 소회를 밝혔다. 권범선 병원장은 “지속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송천사 주지 혜장스님을 비롯한 세 분 스님들의 귀한 뜻을 받들어 첨단 의료 장비 구입 기금으로 소중한게 사용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자비의료실천, 동국대학교병원을 일구는 힘

나누고자 하는
귀한 마음

후원 문의

대외협력홍보팀
031-961-9000

발전(후원)기금
기부자

454명

기간 ▶ 2024. 7. 1.~ 7. 31.

동참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익명의 스님	100,000,000
화정스님	50,000,000
혜장스님	20,000,000
성법스님	10,000,000
정묵스님	10,000,000
자문스님	10,000,000
(주)아라니아 박덕선 대표님	5,000,000
적연스님	1,000,000
외 446명	(단위 : 원)

기부자님이 보여주신 숭고한 뜻을 새기어 생명 존중과 자비 의료를 실천하겠습니다.